

드디어 고속철도(KTX)가 역사적 운행을 시작 했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일본만이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야 할 쾌거임에 틀림없다.

고속철 KTX가 개통되면서 국민 모두 스피디한 'KTX경제시대'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고 동서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며 새로운 복합상권으로 집적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축해야 할 고속철도의 개통에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수익성이 강조된 나머지 편의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호 운행이 완전히 폐지되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아주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운행간격이 너무 길어 비싼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조정해 버린 것이다.

철도청은 고속철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전에 새마을호도 타기에 벅했던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마을호나 KTX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분분하고 있다.

또한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조차 요금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KTX만 달리면 되나?

은 그대요미면서 정차역은 더 늘어나 또 다른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KTX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열차배정과 열차운용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공공기업인 한국철도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느낌이다.

원래 철도를 비롯한 전력, 통신, 수도, 도시가스 등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위당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소규모의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자연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처방이 기업의 국

유화 즉 기업유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철도의 행정을 보면 공공기업이라 보다는 마치 민간 독점기업의 병폐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쏠쏠하다. KTX의 대체재가 바로 통일호와 무궁화호 그리고 새마을호인데 통일호의 운행폐지는 경쟁상품을 인위적으로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행위이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열차배정과 운용정책은 상품의 질을 변형시키면서 경쟁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같은 경쟁체제의 붕괴는 곧 독점주의의 이

행은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기업이 지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만약 효율성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독점기업의 병폐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가격규제와 경쟁촉진정책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가격규제정책으로는 고속철의 운임료를 현재의 할인제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전력의 경우 상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가 다르듯 고속철 역시 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해 다중가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속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KTX와의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лай만 기존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그리고 새로운 KTX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해가면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 국민을 위한 충실한 대중교통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현 조계종의 최대 현안인 불자 사면이 또 다시 미루어졌다. 조계종 163회 임시 중앙총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부결된 것이 이번이 세번째다. 조계종이 명실상부한 화합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불자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불교계의 요구가 팽배한 가운데, 여러 뜻있는 스님들의 발의로 상정되었기에, "이번에는..." 하는 바람이 있었다. 따라서 실망과 우려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종회의 표결 결과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대의기구인 총회의 성격상 의원 각자의 판단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총회의원들의 파당성이 의심되고, 그러한 의원들로 구성된 총회가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이것은 중앙총회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사면 부결' 과 총회의 위상

요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상황이 좋은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을 감행한 국회가 국민의 전반적인 불신을 받게 된 상황을 타산지적으로 삼을 만큼의 감각은 지녔어야 할 것이다. 형세에 밀려서, 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원칙을 포기하려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여야 할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의 대 화합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 일단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지혜롭게 처리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총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큰 원칙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거나, 지혜로운 방편을 찾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사면에 찬성한 의원들이 더 많은 것도 분명하지만, 조계종을 이끌어 나가는 중앙총회 전체의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린 상황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종단 화합 이전에 언제쯤 명실상부한 최고 대의기구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만 불자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 성대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不信과 이혼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원경>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없는 세상이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타협할 줄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간에는 그렇지 않았다. 부부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옛 말이 돼가는 것 같다. 지난해 하루 평균 835쌍이 결혼했고 458쌍이 이혼했다는 통계청 통계를 보면 부부가 '무혼기간'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혼률이 2002년에 비해 15%나 늘어났다는 가정해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다.

자라난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차이라고 한다.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6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무조건 이혼을 좌악시하는 시대는 분명 지났다. 새로운 삶에 대한 선택을 무조건 비난할 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혼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될 이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최선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치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부부 간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그런데 요즘엔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부부들이 많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살자. 그렇지 않아도 '이혼' 하고 싶은 세상이다.

■ 한명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해의 유출문화재에 관심을

고려시대 때 조성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됐다는 소식을 보고 반가운 금할 길 없었다. 700년만의 귀국이라고 하니, 고국을 만난 사경의 감회도 새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고가로 사들여야 하는 처지를 생각하면 또 다른 비애를 느낀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더욱 높다. 원래 자리인 법당을 떠나 박물관에 전시되는 불상은 더 이상 신앙의 존재가 아니라 관광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불상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7천여 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 수치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추정일 뿐 정확히 얼마

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유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여기에는 정·관계와 학계 등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도 동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유출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은 그 문화재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까지 적극적인 애정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영춘(서울 중구 신당동)

7천 비구니 대변하는 모임돼야

'현대불교' 467호에 실린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기사를 읽었다. 전국비구니회 임원을 소개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단순히 소개에 지나지 않아 안타까웠다.

스미일(롯데뉴스)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산중행(山中行)
어둠이 깔린 산길을 간다
눈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길은 그냥 따라 간다
따라가면 인경소리, 장호지에 어리는 환한 불빛
일주문을 들어서며 비로소 걸음을 늦춘다
비로소 등에 맺힌 땀을 느낀다
뭇짐승들 울음을 벗삼아 어두운 산길을 간다.

적음 스님(일소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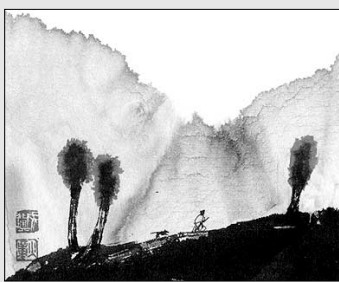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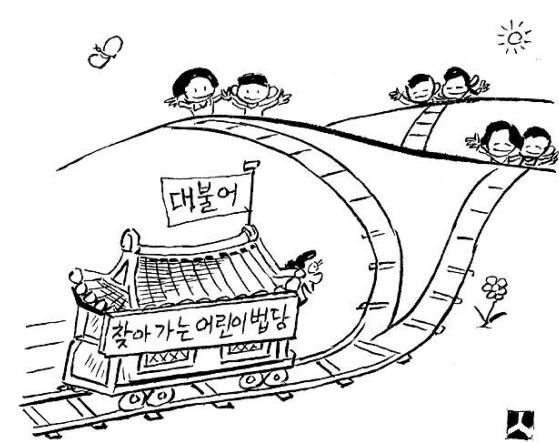


그림 전성진

'연대' 민영

심민섭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미생물·세포·분자생물학 연구실 센터장
현재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릎,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불자님을 모십니다



Size : 54 X 82 (Cm)
날로 변화하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호산에서는 인동 심치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지로 실크코팅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문을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혜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호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윤회의등불
보살3송이, 나비, NS꽃, 왕관꽃, 왕관, 제비꽃, 진달래, 토끼풀, 봉선화, 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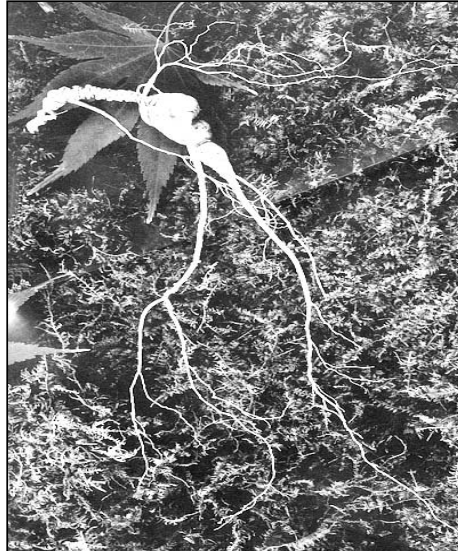
효산

구입문의 및 상담
Tel 02)422-5335 / 02)422-0110
Fax 02)422-1144 / H·P 011-352-509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는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보다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정리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부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부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유하는 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약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확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땀 흘리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轉運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가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산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